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주일예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12월 22일 (제1034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Merry Christmas!!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사랑
영원한 나의 사랑이여
그 이름 예수

샘물이 강물을
강물이 바다를 이루듯이
오 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내 마음에 스며드네

은하수 삼형제
만달이 햇님을 맞이하듯
오 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내 맘에 파고드네

오 나의 사랑 보그픈 사랑이여
오 나의 사랑 그리운 사랑이여
오늘도 목이 메어/블러블니다
영원한 나의 사랑
그 이름 예수를 불러드립니다

朋友 이초석 목사

목사님의 성역 35주년, 예수중심교회 창립 35주년을 축하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16~20).

지난주일 아침, 김종일 장로님은 예배 전 방송실에서 핀 마이크를 세팅 중이시던 목사님께 “응급실에 실려 가셨다가 오셨답니다. 기도해주세요.”라며 안내권사님 한분을 방송실로 모시고 들어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즉시 기도해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셨지요.

이 찢어졌다며 반창고를 달라고 방송실로 찾아오신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휴지로 감싼 상처를 열어보니 속히 껴매야할 정도였어요. 빨리 병원 응급실로 가서 껴매라고 말씀드렸더니 무슨 소리냐며 반창고마저 거부하고는 휴지로 감싼 채 성전으로 사라지셨어요. 나중에 수소문해서 알아보니 예배를 마치고 태연스럽게 기도를 받으시고는 귀가하셨는지 뭇나. 목사님들께 말씀드렸더니 우리 성도들은 보통 다 그렇다며 “평신도들이 여느 주의 종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하십니다.

별로 특별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이런 성도들을 접할 때마다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낍니다. 자신의 안위보다도 예배를, 맡겨진 직분을 생명처럼 여기며 교회로 달려오는 우리 예

수중심교회 성도들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런 믿음,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당당한 믿음의 자세는 어디에서 온 걸까 생각해 보면 답은 아주 자명하지 않습니까? ‘엄마소는 얼룩소 엄마 닮았네~’ 아니겠어요? 그 목사님에 그 성도인 것이지요. 35년을 오로지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오신 목사님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염된 결과라 믿습니다. 목사님은 천국에 가서 우리 성도들을 자랑할 것이라 늘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당신 목회의 당당한 열매라 믿으시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중심교회는 목사님과 함께 35년을 그렇게 달려왔지요. 온갖 핍박을 견디며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오로지 하

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앞으로 그 신앙을 생명처럼 여기며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사단 앞에서 욕을 자랑하던 그 하나님께 영광의 그날, “잘 하였습니다!” 칭찬 받는 예수중심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대하며, 목사님은 우리들을 자랑하고, 우리 모두는 목사님을 자랑하는 그 벅찬 영광의 날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천군천사와 함께 기뻐하실 그날을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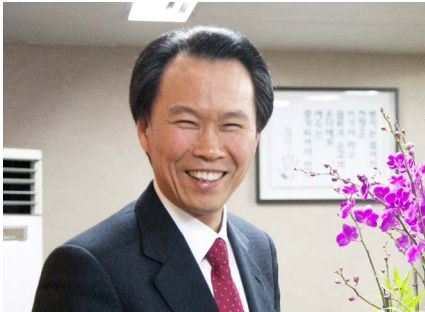
물 없는 사막을 지나 눈 덮인 산야를 넘어온 오늘, 목사님의 성역 35주년과 예수중심교회 창립 35주년을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목사님 성역 35년을 축하드리고, 예수중심교회 창립 35주년을 축하합니다!

를 없는 사막이요, 눈 덮인 산야를 35년 걸어오신 이초석 목사님의 성역 35년을
예수중심교단 산하 모든 교회 성도들과 땅끝예수전도단 회원들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역 35주년 축하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 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 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 네 대라”(마태복음 1:17).
‘우리 목사님 태어나셔서 목회 시작하신 지가 35년이요, 목회 시작에서 2019년이 35년이요, 주님 품에 안기시는 2054년 오늘까지 35년이더라.’
10여 년 전에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비슷한 설교를 했었는데 목사

님 성역 35주년, 연세 70세가 되니 이 성경구절이 다시 생각나서 써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서울 모 교회 방OO 목사님께서 102세가 되셨음에도 목회하시면서 심방을 다니신다는 기사가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왕성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무한 감사와 한편으로는 발맞추지 못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나의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을 광고하는 것이 존재의 유일하신 이유’라 하시니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희도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존재하겠습니다. 그분 마음에 합한 종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늘 다짐하고 간구하고 자신을

살펴봅니다.
많은 목회자 가정의 형제들이 ‘목사 형제들끼리 함께 목회하기가 힘들다’고도 하고, ‘가까이하면 서로 상처를 받는다’고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게 와서 어서 그곳에서 나오라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형제나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그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지금까지 목사님을 가까이하면서 더욱 머리가 숙여질 뿐이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가정의 자질구레한 일들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초지일관 사랑하시고 예수중심의 일 처리가 내 마음속에 깊이깊이 새겨지고 닳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들메도 감당 못한 세례요한

의 마음이 늘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저 존경하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조금이라도 닳아보려고 몸부림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한 제자들을 거두시고 쓰신 것처럼, 부족한 저희 제자들을 나 무라지 않으시고 늘 격려하시고 일할 수 있도록 명석을 펴주셔서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목사님, 우리 모든 제자들은 표현은 못해도 목사님을 엄청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건강하시게 저희들 곁에 제3의 35년 힘차게 뛰세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뒤쫓아 가겠습니다.
목사님, 성역 35주년 정말 축하드리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가서 영원히 함께 영광 돌릴 날을 바라며.... 할렐루야!
서울예수중심교회 이시대 목사

만남의 축복



할렐루야! 총회장 목사님의 목회 3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총회장 목사님을 만난 지도 벌써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깊어가는 겨울 크리스마스 캐럴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네온사인 이 유난히도 반짝이는 2019년도를 보내면서, 제 나이도 벌써 환갑을 맞이하는 해가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손과 발이 되어준 아내와 사랑스런 딸과 든든한 아들

을 선물로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총회장 목사님과 만남은 제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예수중심교회에 와서 제 삶은 변하였습니다. 세상일에 바쁘고 돈을 좇아 살던 삶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제 마음을 아시고 ‘길 잃고 소외된 영혼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사명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혁신예수중심교회를 세우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보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금요예배에 전도사님의 메시지는 우리들을 늘 감동시킨답니다. 그 설교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에 아주 많은 힘이 되어 준답니다. 아직 목사님은 안 계

시지만 전도사님이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셔서 아름답게 교회가 잘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뒤에서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면서 목사님 사역에 힘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가 예수님이시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것느냐?’고 말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하신 것이다.” 오직 총회장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깨닫는 지혜와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 목사님을 생각하면 회개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총회장 목사님께서 단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실천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아내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가족 카톡에서 받은 말씀을 늘 나누면서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 총회장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120세가 지 우리 곁에서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성역 35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혁신예수중심교회 전영수 장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

여보게!
나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왜 사는지 몰랐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장차 어디로 가는지도 당연히 몰랐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서 흥청망청 쾌락을 즐기며 살았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인생이 예수를 만난 후 180도 달라졌듯이 나 역시 예수를 만난 후 예전의 이춘석이 아닌 이초석으로 다시 태어났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지.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

다네. 성경적 표현을 빌자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거라네. 이것을 알고 난 후 나는 이 일 외에는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살았네.
사실 나는 이 땅에 아무런 미련이 없네. 솔직히 이제 그만 주님 품에 안기고픈 마음이 들 때도 많네.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그럼에도 내가 성도들이 120살까지 살라고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내가 더 살아야 할 이유

가 있다는 거야.
나는 늘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에 “나요!”라고 큰소리로 외친다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확인하는 거지.
여보게!
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 고초를 당하고 죽기까지 했네. 나 역시 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선한 일을 했건만 핍박과 고통과 역경으로 점철된 길을 35년 걸었다네. 정말 외롭고 힘들었지. 눈물이 강을

이룬 적이 많았네. 그러나 결국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행복과 기쁨이 있기에 핍박과 환난 중에도 오히려 감사했다네.
목회 35년, 내 나이 70! 이제 황혼이지. 그러나 살아가는 이유, 존재 이유를 안다는 것은 행복한 일 아니겠나. 더욱 해야 할 일이 산재한다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인 게야. 나만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네. 자네도 주를 위해, 복음전파를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죽을 다음에는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朋友

우리의 자랑이신 이초석 목사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초석 목사님에 대해 물으신다면, 나는 당당히 이와 같이 말할 것입니다.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목사님이셨고, 정말 믿음의 분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동분서주하신 분이셨습니다.”

31년 전, 당시 큰 언니(지금은 주님 나라에 있지만)의 권유로 처음 인천교회에 나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나의 미약한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며, 강력하게 언니가 다니던 한국예루살렘교회(지금의 예수중심교회)를 추천하여 서울에서부터 인천까지 따라갔지만, 막상 가보니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왕왕거리는 소리로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모두 시끌벅적 개구리처럼 울어대는 소

리에 무엇을 하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예배 후에 다음에는 안 가겠다고 언니에게 말하니 제발 세 번만 나와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언니의 간절히 부탁하는 말에 그럼 딱 세 번만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언니의 간절한 기도 덕분인지, 두 번째 갔을 때, 목사님 설교가 또렷이 들렸고, 비록 시끄러웠지만 싫지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여러 은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각가지 영적인 체험들을 이초석 목사님과 그 교회를 통해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어른들과 주변에서는 내가 점차 미쳐간다고 말하고 그 교회를 가면 안 된다고 막기 시작하며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나는 그분들이 이해가 되어, 반박 대신 울며 그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분들도 모두 주님 품에 들어왔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모두, 주님께서 쓰시는 이초석 목사님과 예수중심교회 덕분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영적인 가이드만이 아니라 이초석 목사님은 삶에서도 본이 되셨습니다. 늘 강조하시듯, 오직 믿음, 정직, 부지런함을

당신의 삶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목사님은 진실되게 사시려고 애쓰셨습니다. 목자로서, 또 영적 부모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영적 자녀들을 돌보듯이 성도들을 정말로 아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만 스승이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고전 4:15)”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목회자 중에는 가르치려고만 하지 아니 심정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은데, 이초석 목사님은 드물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했을 때, 목사님은 몇 시간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시고, 참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함께 아파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조하신 권고의 말씀, “주님만 붙잡아!”

저와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예수중심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장성하여 그의 자자손손까지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초석 목사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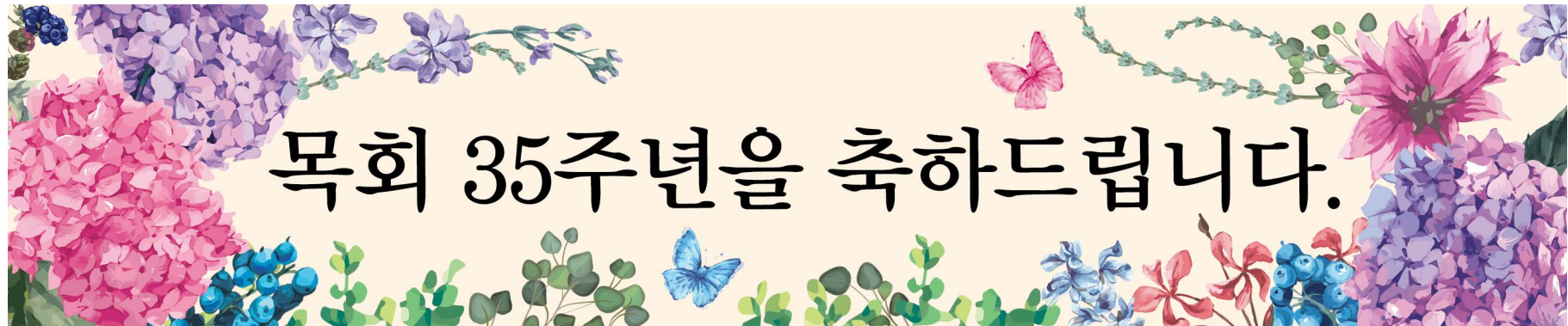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열매였습니다. 당시에 교회 리더들이 다른 곳에

갈 때는 교회의 추천서를 받아서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 추천서를 보고 타 지역의 성도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여 대접도 하고 말씀도 듣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의 추천서 없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히 믿음으로 성장한 교인들이 바로 바울의 추천서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초석 목사님의 열매들인 우리도 곧 추천서와 같은 것입니다.

오래 전에 입신을 하여 주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셨을 때, 이초석 목사님의 집을 보여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 “우리 모두, 천국에 있는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구.” 하신 것처럼, 그곳은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낼 수 있어 보였습니다.

목회 35년 동안 많은 수고로 많은 결실을 맺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에도 변함없이, 믿음의 선전들처럼 살아가실 목사님께 주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하시며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중심교회에도 주님께서 풍성히 축복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에서 권문선 선교사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소화가제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삶이었는데 총회장 목사님의 손길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서부터 너무 감사하여 주님의 일을 대충할 수가 없어서 최선을 다하였다.

목사 안수를 받고 익산교회에서 200평의 교회를 50평으로 이전하고 잠시 쉬었다가 김천으로 발령을 받아 갔으나 쫓겨나서 김천 중앙예수중심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성전을 임대하여 수리를 하면서 방음을 위하여 천정에 방음제를 넣던 중 힘이 들어 잠시 쉬려고 하다 그만 천정에서 떨어져 머리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

하였다. 보고를 받으신 총회장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는 대뜸 “고놈, 고소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로 작정하였다. 이후에 아산으로 발령받아서 목회를 하게 된 것이 벌써 23년이 지났다. 아산에서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경험케 하셨다. 땅을 240평 빌려서 조립식으로 건축할 때에는 너무 곤고하고 힘든 가운데 주님께서 에스겔 34장 말씀을 보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다. 너무 피곤하여 “나중에 볼게요.” 했더니 세 번을 연거푸 보라고 하셔서 바로 순종하지 않았음을 회개하며 보았더니 선한 목자와 샅군 목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며 ‘이제 너와 화평의 언약을 세우리라’는 약속을 하셨다.

10년 전에 지금의 교회건축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지교회의 성전 수리를 위하여 조금씩 봉사하게 하시더니 어느 날 총회장 목사님으로부터 황금빛이 찬란한 암행어사 마패를 받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후로 특공대가 결성되고 총회장 목사님께서 지교회의 이전이나 수리

할 일이 있으면 가서 봉사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셨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거나 이전할 때에 현장에 가서 최선을 다하여 일할 때 주님께서 뜻이 있는 지교회 목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물질로, 몸으로 헌신하게 하셔서 필요한 물질을 채워 주시는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어느 날 피곤한 몸을 누이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늘이 열리며 수많은 성가대들의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찬란한 빛의 흰옷 입은 우리들이 오케스트라와 지휘자가 함께 ‘하늘가는 밝은 길이’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꿈을 꾸게 되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타이니’를 부르는 그 순간 부족한 나를 찬양 인도를 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성전 수리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감사의 눈물을 흘리다 깨어났다.

지난 10월에는 나이가 들면서 육체가 조금씩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지 다리에 연골이 닳아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하러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지금까지 살

려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눈물이 나면서 아픈 성도들이 안수받기 위하여 왔을 때 건성으로 기도해준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눈물 흘려 회개하였다. 수술 중에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주셔서 무한감사를 드렸다. 입원해있을 때 목사님께서 심방을 오셨다. 병원 문에 들어서시는 목사님을 뵈는 순간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많이 연로하신 모습에 마음이 몹시 아팠다. 몹시 바쁘신 중에도 부족한 종을 심방하시고 퇴원할 때에 행정목사님을 보내셔서 병원비를 정산해주셨다.

목회 35주년을 맞이하시며 늘 주님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대하시고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총회장 목사님을 따라오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혹시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리진 않았는지, 신경 쓰이게 해드리진 않았는지 다시 돌아보며 총회장 목사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실 때 마음껏 마음 편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산예수중심교회 박인덕 목사

봉우컬럼



나의 성탄절

12월 25일은 성탄절(聖誕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탄절은 일정하게 12월 25일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입니다. 생똥맞은 말 같지요? 그러나 제 말을 조금 더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각자가 예수님을 모셔 들이는 때가 아닐까 생각해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말입니다. 예수님은 2천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내가 모셔 들이지 않으면 사실 그분은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옆집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나와 무관하듯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에게 있어 성탄절은 언제입니까? 10년 전입니까? 20년 전입니까? 아직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하시면 내가 변합니다. 집 안에 아이가 태어나도 집안은 잔칫집이 되고, 모든 것이 아이 위주가 되지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셨는데 당연히 흥분되어야 하고, 모든 것이 예수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본질을 잃었습니다. 아니 본질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성탄절을 맞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럴 대신 그분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진정한 성탄절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봉우 이초석 목사

:: 에덴으로 귀환 ::

최고의 선물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겨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 크리스마스는 1년 중 가장 기쁜 날로 전 세계는 온통 큰 축제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해를 거듭할수록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점점 퇴색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국가인 미국조차 세속주의적인 정치인들은 타 종교를 배려한답시고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 즐겁게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대신 ‘해피 홀리데이(Happy holiday, 즐거운 명절 되세요!)’라고 인사하였고, 이를 버락 오바마가 유행시키면서 2010년대부터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울축제기간’이라고 부르며 종교적인 의미가 담긴 ‘홀리데이(holiday)’라는 단어마저 쓰지 않도록 종교 중립적 캠페인을 벌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점점 아기 예수의 탄생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하는 날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 1년 동안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닙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낭만을 구하는 날이 아니고,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선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 죄를 속하사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여섯 살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크리스마스 아침만 되면 마음이 설렘니다. 크리스마스이브에 산타클로스가 굴뚝을 타고 들어와 선물을 놓고 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아침에 눈을 뜨자

마자 머리맡에 선물이 놓여있는지 손으로 더듬거렸습니다.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그랬었지.’라고 변명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 교회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어린이들을 보면 낮이 부끄러워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유아유치부에서부터 대학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총동원하여 아기 예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립니다. 주일예배가 끝나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과 성극을 준비하는 것을 볼 때면 가슴 한편 어딘가 몽클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 환상적인 무대가 끝나고 나면 성도님들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있는 것을 봅니다. 눈앞에 펼쳐진 황홀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기 예수께 보배함을 열어 가장 귀한 세 가지 선물을 드렸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의미하고, 유향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올렸던 향유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를 의미하고, 몰약은 시체의 방부제로 사용했던 향유인데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며 선지자로 오신 예수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당대 가장 값비싼 최고의 선물이었었고 동방박사 세 사람은 가장 귀한 것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순결한 어린양이신 아기 예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까요? 저도 올해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할 최고의 선물을 드리기로 작은 결단을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보살피고 온정을 나누는 것으로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보배함에는 어떤 선물이 들어있나요?

김은유 집사

:: 성경에서 배운다 ::

크리스마스에 해야 할 일

꿈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람들은 트리를 장식하고, 여행을 계획하고... 하지만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여가생활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화평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신의 생명의 피로 해결케 하고자 오신 것입니다. 말구유에 겨우 몸을 누이는 탄생이셨고,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이셨으며, 십자가 죽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마 창조자이자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고작 피조물인 인간 따위를 위해 독생자를 죽일 만큼 인간을 사랑할 줄은요. 이렇듯 예수께서 이루신 온전한 희생은 사단이 우리를 움아낼 죄의 근거를 빼앗아갔으며 우리에게 참된 자유, 부활, 영생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자세는 남달라야 합니다.

다. 자신의 기쁨을 채우고, 근사한 분위기를 내는 시간이 아닌 예수께서 이루신 완전한 희생을 되새김하고, 내 주변을 화평케 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지요. 화평케 하기 위해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자신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희생되면 견딜 수 없이 화를 내는 사회가 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날만이라도 먼저 손 내밀고, 섬기고, 희생하며 예수님을 닮으려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 곤충학자가 개미집에 불을 붙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개미들이 화재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연구하려 했지요. 실험 전, 곤충학자는 개미들이 서로 도망가다 집을 몽땅 불태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불을 발견한 개미가 자신의 몸을 불 속으로 내던졌고, 다음 개미들도 마찬가지로 불 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그러자 불꽃이 점점 약해져 결국 소화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개미의

몸을 이루고 있는 키틴질이 불에 타면서 불꽃을 줄이는 소화물질로 변환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개미의 희생으로 개미집 전체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고 곤충학자는 미물인 개미들의 행동에 숙연해졌습니다. 목숨을 던진 개미처럼 대단한 희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차장을 먼저 빠져나가려 화내지 않고 양보하거나, 짝 찬 엘리베이터를 노약자를 위해 양보하는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정, 직장, 교회, 우리가 서있는 어느 곳에서라도 우리가 조금만 더 섬기고, 먼저 배려하는 그곳에서 화평이 일어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태복음 20:28).

하인명 집사
renming@daum.net

